

조선시대 비밀병기를 실물로!

고창 고인돌박물관, 25일 '비격진천뢰 특별전' 개막



고창군이 오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고창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9 조선무기 특별전, 비격진천뢰'를 연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고창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9 조선무기 특별전, 비격진천뢰'를 연다. 비격진천뢰는 무쇠의 탄환 속에 화약과 쇠조각을 넣고 폭발시간 조절장치(타이머)까지 갖춘 조선시대 독창적인 최첨단 무기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비밀병기', '귀신폭탄', '사한폭탄'으로 알려졌다. 고창군내에서 서울 창경궁 발견품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860호 등 총 5점만 전해지다가 지난해 고창 무장읍성 발굴성과와 비격진천뢰에 대한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며 특별전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고창군의 특별전은 보존처리가 거의 완료된 비격진천뢰와 이를 발사했던 화포인 압구(보물/국립진주박물관 소장)와 진주성과 창경궁(추정)에서 발견된 비격진천뢰 등을 한자리에서 함께 실물 전시한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비격진천뢰의 과학분석과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이 밝혀낸 제작·조립 과정 및 3D프린트 복원품 등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임진왜란 장면을 연출한 몰입형 대형영상(인터랙티브 맵핑)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여줄

전망이다. 또 다음달 15일에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진행한다. 학술세미나는 그동안의 고창 무장읍성 발굴성과와 비격진천뢰의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 결과, 제작기법, 조선시대 화약무기 개발과 발달사, 완구의 발달사 등을 통해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05년부터 진행된 무장읍성의 발굴과 정비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는 고창군의 꾸준한 문화재 보호 정책과 체계적인 발굴조사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임진왜란 이후 동학농민군의 무장읍성 입성 시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읍성의 비격진천뢰는 앞

으로 무장읍성의 새로운 역사문화의 스토리텔링 되는 고창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비격진천뢰가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다량으로 출토돼 다양한 조선무기와 최첨단 기술을 재조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선조들의 마음을 배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비격진천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및 비격진천뢰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녹두꽃은 영원하리'

수제천보존회, 24일 특별기획 음악극 공연
민초들의 애환과 정신, 음악 통해 재조명

(사)수제천보존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 공연한다.

이번 음악극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기념 특별기획으로 진행된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는 민초들의 애환과 정신을 음악을 통해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극은 수제천 연주단이 음악극의 배경 연주를 맡고 조광희의 피리 솔로로 전체 선율을 이끌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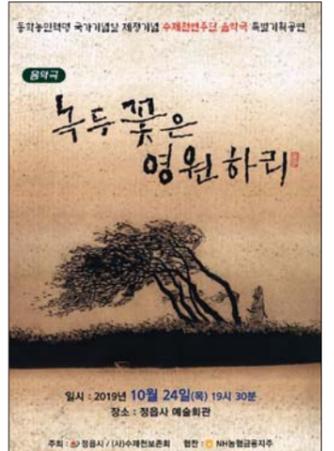
수제천 보존회 관계자는 "말이나 글이 아닌 음악을 수단으로 동학 정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음이 그만큼 수준 높은 문화 인문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북도민회 장기철 상근부회장이 전체 줄거리를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박성우 시인이 대본을 완성했다.

또 정음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김재영 소장과 조광희 소장이 내용 지문을 맡고 수제천 보존회의 이금섭 예술감독이 음악 전체를 작곡했다.

특히, 활발히 활동 중인 신동엽, 김용택, 안도현, 도종환, 김인태, 박성우 시인들의 작시는 이번 음악극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연극배우 최경원이 연출과 내



이선을 맡아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며 무용과 성악 등 다양한 출연진으로 음악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음악극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박홍규 작가의 판화 작품은 각 장면의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은 무료다.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완주군, 일생 기록한 인생보 청사 로비에서 전시... "완주군민이 곧 완주의 역사"

완주군민들의 일생을 정리해 기록한 인생보(人生報)가 완주군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육성사업 일환으로 완주군에서 주최하고 책공방북아트센터(이하 책공방)에서 주관해 진행된 인생보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완주군청 로비에서 열리는 인생보는 한 사람의 일생을 정리해 기록한 글이다. 완주에 오랜 기간 거주한 만 60세 이상인 스무 명의 완주군민이 참여했으며, 어르신들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고, 기록했다. 이달 초에는 인생보 증정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책공방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은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역사라고 생각돼 인생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생보 관련 문의는 책공방북아트센터(070-8915-8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



완주군민들의 일생을 정리해 기록한 인생보가 완주군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다.

촌에 자리한 책공방은 그동안 꾸준히 지역의 책문화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며, 지역민을 기록하기 위한 자서전학교와 지역출

판 전문가 양성과정인 책공방 책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부안예술회관에서 25일부터 한음페스티벌 개최

부안군은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문예회관 생활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안예술회관에서 2019 부안 한음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예회관 생활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수준 제고와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부안관내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단들의 페스티벌로써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안초등학교 관악부 공연을 필두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클라무 오케스트라, 부안아리울 오케스트라, 부안가족오케스트라, 하늘 좋은 오케스트라, 부안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부안동초·남초·행안초·곰소초등학교의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상주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4일간 펼



쳐지는 공연에 많은 군민들이 찾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페스티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지부장 홍종기



전주농협
조합장 임인규



북전주농협
조합장 이우광



용진농협
조합장 정완철



소양농협
조합장 유혜광



상권농협
조합장 이계욱



구이농협
조합장 안광욱



이서농협
조합장 송영욱



삼례농협
조합장 강신하



봉동농협
조합장 김은희



고산농협
조합장 국영석



화산농협
조합장 김종채



운주농협
조합장 윤여설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김우철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김창수

삼례농업협동조합